

## 내일의 화제\_시와 건축에 관한 단상

Tomorrow's topic - brief thought about poetry and architecture

글. 오은 Oh, Eun · 시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는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 “모든 위대한 건축사는 —필연적으로— 위대한 시인이다.” 자신이 몸담은 시대를 독창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그는 덧붙인다. 건축은 단순히 도면을 그리고 자재를 구비한 뒤 예정된 프로세스대로 돌을 쌓아 올리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천명하는 것이다. 건축을 위해서는 우선 건축 이전과 건축 이후에 자리할 관념(idea)에 능동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자리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한다는 뜻인데, 이는 건축물이 들어설 자리에 관념이 먼저 뿌리를 내리게 됨을 시사한다.

몇 년 전 뉴욕에 갔을 때 나는 자체적으로 미술관 투어를 했다. 기능적으로 작품들을 배치해놓은 곳도 있었고 작품들이 소장된 저택 자체가 거대한 미술관인 곳도 있었다. 뉴욕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까지 생생하게 떠오른 것은 다름 아닌 구겐하임미술관이었다. 구겐하임미술관에는 내가 좋아하는 화가인 클레와 칸딘스키의 작품들이 많았다. 맨 처음 방문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바로 저 이유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미술관을 나서는 순간, 나는 미술관 내에서 봤던 작품보다 미술관이 더 기억에 남았다. 처음에 바깥에서 미술관을 봤을 때 고개를 가웃했었다. 파리를 튼 것 같기도 하고 달팽이 같기도 한 외관은 둘째치고라도, 층이 위로 올라갈수록 표면적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 신기해서였다. 마치 아이스크림콘처럼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어색해 보이지는 않았다. 아마도 널따란 1층이 상부를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길 건너에서 바라보니 신호등과 나뭇가지조차 미술관과 어울려 하나의 풍경을 이루고 있었다.

구겐하임미술관에 들어간 뒤에는 자연스럽게 비밀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자연스러운 비밀이라니, 언뜻 형용모순처럼 들리겠지만 구겐하임미술관은 생각지도 않은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다. 보통 한 작품을 보고 옆으로 몇 발짝 떼서 다음 작품을 보는 게 일반적인 미술관 동선이다. 한 공간에 있는 작품들을 다 보면 바로 옆에 있는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야 한다. 구겐하임미술관은 달랐다. 아래서 위로 나선형 구조를 따라 이동해도 되었고 엘리



베이터를 타고 맨 위로 올라간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면서 작품들을 관람해도 되었다. 거대한 달팽이관 속에서 귀를 종긋 세우고 온몸의 신경을 한 작품을 향해 쏟아 붓는 느낌이였다. 이쪽에 서서 맞은편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도 놀라운 경험이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빛살은 미술관 전체에 시종 활기를 불어넣어주었다. 공간 구획을 잘해놓아서 작품을 관람하는 데 하등의 불편함이 없었다. 작품들을 따라 이동하면서 어느 순간, 나 자신이 하나의 '몹이'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다. 이렇듯 구겐하임미술관에는 건축 전후의 관념이 있었다. 미술관을 찾은 관객들까지 하나의 건축 요소가 되고 있었다.

내 시 「건축」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로코코, 로코코/내일의 화제(話題)처럼 불이 났다//나는 그제야 짓기 시작한다/표정을/표정들로 이루어진 위태로운 집을” 나는 시와 건축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시 또한 언어로 짓는 집이기 때문이다. 자체가 중요한 건축물처럼, 한 단어가 잘못 들어가면 시 전체에 비가 질질 새고 급기야 무너질 때도 있다. 1층이 2층을 짐작하듯, 1연은 2연과 각별해야 한다. 시 또한 건축처럼 유기적이면서도 어딘가에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내일의 화제를 품고 있어야 한다. 모험의 여지가 시를 끝까지 이끌고 나가는 힘이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건축사가 건축물에 자신만의 숨결을 불어넣듯, 시인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오롯이 새기는 과정이다.

